

樂府詩「梅花落」에 관한 小考*

禹在鎬**

目 录

1. 서론
2. 「梅花落」에 관하여
3. 「梅花落」의 내용과 형식
4. 한국 고전시가 중의 「梅花落」
5. 결론

1. 서론

중국의 역대 시인들은 꽃 중에서도 특히 매화를 사랑하였다. 이는 화훼를 읊은 시들 중 매화를 읊은 시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도 유추할 수 있다. 詩題에 매화라는 용어가 사용된 시나, 비록 시제에 매화라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梅花를 주제로 하고 있는 시들을 검색하다보면, 魏晉代부터 明代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인들이 「梅花落」이란 동일 시제의 작품을 다수 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梅花落」을 추출하여 내용을 분석해보면, 매화가 시의 소재로 활용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변경으로 출정 나간 군인의 思鄉 내지 낭군을 변새로 떠나보낸 젊은 부인의 閨怨을 주제로 하고 있어, 「梅花落」을 매화시의 범주에 포함시켜 연구대상으로 함께 다루어도 되는지 모호하다. 그리고 그 형식을 보면 대다수가 8구의 오언고시 형식을 하고 있지만, 그 중

* 이 연구는 2013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嶺南大學校 中國言語文化學部 教授

에는 간혹 16구의 오언고시나 칠언고시, 5·7언 8구의 長短句나 절구의 형식을 지닌 경우도 있고, 또 5·7언 長短句도 5언구의 배치가 동일하지 않은 등, 「梅花落」이란 시가의 실체에 의문이 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대부터 불리어졌다는 악부시 「매화락」과 역대의 많은 문인들에 의해 끊임없이 창작되어진 의고악부시 「매화락」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악부시 「매화락」이 어떤 성격의 시가였는지, 위진 이후 역대 의고악부시 「매화락」은 어떠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지 「매화락」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분석해보고, 더 나아가 한국 고전시가에서도 「매화락」이란 악부시가 창작되었는지를 탐색하여 중국의 「매화락」과 대비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악부시 「매화락」도 매화시의 범주에 포함시켜 매화시의 일부분으로 다룰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梅花落」에 관하여

중국 역대의 시들을 보면 매화 자체를 그리거나, 매화를 매개로 시인의 감흥 내지 감회를 표현한 「梅花詩」라 정의할 수 있는 시들이 많이 보인다. 詩題에 「梅」자가 들어 있는 현전하는 최초의 매화시로는 南朝 齊나라 謝朓의 「詠落梅」를 들 수 있다. 사조의 이 시를 필두로 唐代와 宋代, 그리고 이후의 수많은 시인들은 한결같이 매화시를 창작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中國의 시인뿐만 아니라 韓國·日本 등 동아시아 문인들 역시 매화를 특히 애호하여 자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동아시아 문인들 대부분이 梅花가 文인의 氣節을 상징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며, 君子の 氣節을 상징하는 네 가지 사물(梅·蘭·菊·竹) 중에서 매화가 으뜸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역대 문집을 살펴보면, 중국 최초의 매화시라고 할 수 있는 謝朓의 「詠落梅」가 창작되기 이전에 이미 「梅花落」이란 악부시가 보인다. 아울러 중국의 역대 문집을 살펴보면 「매화락」이란 시체의 시들이 명대까지 꾸준히 창

작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 개관을 검하면서 「매화락」의 명칭과 성격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고 한다.

郭茂倩이 편찬한 『樂府詩集』 卷21 「橫吹曲辭」 설명에 의하면 「매화락」은 원래 漢나라 악부의 횡취곡 곡명이었다. 橫吹曲은 처음에 역시 鼓吹曲이라 불렀고, 말 위에서 연주하니 대개 軍中의 음악이었다. 橫吹는 鼓와 角을 사용했으므로 鼓角橫吹라 불렀으며, 원래 漢武帝 때 張騫이 西域을 개척하면서 서역에서 수입한 음악이었다.¹⁾ 郭茂倩의 「매화락」 조목 해제에서는 “「매화락」은 본래 피리곡이었다. 당나라 때 대각곡에 의하면 「대선우」·「소선우」·「대매화」·「소매화」 등의 곡명이 있었고, 지금도 그 가락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있다”고 하였다.²⁾ 이 「매화락」은 때로 「梅花曲」, 「落梅花」, 「落梅」, 「大梅花」, 「小梅花」 등의 별명으로 칭해지기도 하였고, 이외에도 「梅花三弄」 또는 「梅花弄」, 「三弄」, 「梅花引」 등으로 칭해지는 경우도 있었다.³⁾

- 1) 郭茂倩, 『樂府詩集』(全四冊, 北京, 中華書局, 1991.12 三版) 卷21, 309쪽, “橫吹曲, 其始亦謂之鼓吹. 馬上奏之, 蓋軍中之樂也. 北狄諸國, 皆馬上作樂. 自漢以來, 北狄樂, 總歸鼓吹署. 其後分爲二部, 有簫笳者爲鼓吹, 用之朝會道路, 亦以給賜. 漢武帝時, 南越七郡, 皆給鼓吹是也. 有鼓角者爲橫吹, 用之軍中. 馬上所奏者是也. …… 橫吹有雙角, 卽胡樂也. 漢博望侯張騫入西域, 傳其法於西京.”
- 2) 郭茂倩, 『樂府詩集』 위의 책, 卷24, 「橫吹曲辭·四」349쪽 “梅花落本笛中曲也. 按唐大角曲, 亦有大單于·小單于·大梅花·小梅花等曲, 今其聲猶有存者.”
- 3) 한국에서는 「梅花落」 관련 연구로 발표된 논문이 아직은 없는 듯하다. 다만 權寧海의 「唐代 梅花詩 研究」(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12)에서는 『樂府詩集』에 수록된 위진대와 당대의 「梅花落」을 한 장으로 다루어 소개하였다. 중국 자료로 「매화락」 곡명과 별명 등 명칭에 대해 다루고 있는 논문으로는 韓寧의 「樂府橫吹曲『梅花落』考」(『樂府學』 第3輯, 2008.8)와 王美鳳의 「『梅花落』研究(上)」(『樂府學』 第5輯, 2009.12), 「『梅花落』研究(下)」(『樂府學』 第6輯, 2010.12) 등이 있다. 이들 논문에서는 笛曲 「梅花落」과 角曲 「梅花」, 그리고 琴曲 「梅花三弄」이 서로 다른 곡명이었고, 「梅花曲」, 「落梅花」, 「落梅」, 「大梅花」, 「小梅花」 등도 유전상의 상관관계는 있지만 서로가 완전히 동일한 별명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梅花三弄」이 「梅花落」과는 전혀 다른 琴曲이었음을 주장하는 논문으로는 程杰의 「『梅花三弄』起源考」(『中國典籍與文化』, 2006.6)와 李玉梅의 「古典名曲『梅花三弄』簡介」(『流行歌曲(藝考)』, 2008.6) 등이 있다. 하지만 『漢語大詞典』(全13冊, 漢語大詞典編纂委員會, 上海辭書出版社, 1986 初版) 권4 「梅花」 조 4항 ‘매화락의 간칭’이라는 설명과 기타 「梅花落」, 「梅花三弄」, 「梅花弄」, 「梅花引」, 「梅花曲」 조의 설명, 그리고 권9 「落梅花」, 「落梅」 조의 설명은 王美鳳 등의 논

현존하는 「매화락」 작품은 郭茂倩의 『樂府詩集』 卷24 「橫吹曲辭·四」에 수록된 작품이 13편인데, 이중 鮑照와 吳均 등 위진남북조 시기 시인의 작품이 10수이고, 나머지는 唐代 盧照隣과 沈佺期和 劉方平의 작품 각각 1수씩 3수이다. 하지만 『全唐詩』 등의 자료를 검색해보면 당나라 때의 작품으로 楊炯의 「梅花落」이 한 수 더 있고, 宋代에는 曹勛과 李少雲의 작품이 각각 한 수씩 2수, 元代에는 錢惟善과 周巽의 작품이 각각 한 수씩 2수, 이 밖에 明代에는 劉基를 비롯하여 14시인의 작품 총 17수의 「梅花落」을 찾을 수 있었다.⁴⁾ 물론 시구에서 「梅花落」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역대의 시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보이지만,⁵⁾ 본고에서는 시제를 「매화락」이라고 제한 총 35수의 시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과 형식상의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 서로 다른 부분이 있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의고악부시인 역대 「매화락」만을 중심으로 다루기로 하고, 笛曲 「梅花落」, 角曲 「梅花」, 琴曲 「梅花三弄」 「梅花弄」 「三弄」 및 「梅花引」, 「梅花曲」, 「落梅花」, 「落梅」, 「大梅花」, 「小梅花」 등의 명칭과 상관관계 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탐구는 후일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4)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上海古籍出版社, 1999)에는 명대까지의 시만을 검색할 수 있고, 청대의 시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청대 시는 문헌상의 한계도 있고 자료검색도 여의치 않아, 본고에서는 명대까지의 「매화락」만을 연구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 5) 예를 들면 이백의 시 「觀胡人吹笛」에 “호인이 옥피리를 부는데, 절반은 진나라의 소리라. 오산의 시월 새벽, 경정에서 매화락 피리곡을 듣는다. 수심에 쌓여 출새곡을 듣자니, 쫓겨난 신하의 갓끈에 눈물이 가득하다. 오히려 장안길 바라보며, 공연히 주상 그리워하는 마음 풀어본다.(胡人吹玉笛, 一半是秦聲. 十月吳山曉, 梅花落敬亭. 愁聞出塞曲, 淚滿逐臣纓. 却望長安道, 空懷戀主情.)” 등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 集部에서 「梅花落」을 검색해 본 결과 총 434항목의 용례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숫자는 시제와 시구에 사용된 경우와 악부시 「梅花落」과는 상관없는 「매화가 떨어진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 이에 더하여 「落梅花」 「落梅」 「梅花」라는 용례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3. 「梅花落」의 내용과 형식

1) 「梅花落」의 내용

본 절에서는 각 조대의 「매화락」 중 특징적이고 전형적인 시들을 한 수씩 인용하면서 「매화락」의 내용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문헌상 남아 있는 최초의 악부시 「매화락」은 南朝 宋代 鮑照의 「梅花落」이며, 이 역시 「橫吹曲辭·梅花落」의 곡명을 擬題하였다. 횡취곡은 원래 軍中의 음악이었으나, 鮑照가 지은 「梅花落」의 내용은 軍樂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서, 君子를 梅花에 비유하고 小人을 雜木에 비유하여 世人들의 無節操함을 풍자하고 있다.⁶⁾

정원에는 온갖 나무 섞여 있지만,
오로지 매화만을 찬탄하노라.
그대에게 묻노니, “어찌 유독 그러한가?”
“매화를 생각해보니 서리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고,
이슬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
봄바람에 하늘거리며 아름다운 자태 봄날에 뿔내지만,
너희들 생각해 보면 찬바람에 시들어 떨어지니,
부질없이 서리꽃 있어도 서리 같은 자질 없구나!”⁷⁾

「梅花落」은 본래 전쟁터에 나온 병사들이 따뜻한 봄날 고향생각을 노래한 피리곡이다. 鮑照는 이 樂府詩 「梅花落」이라는 곡조명을 빌려와, 외양은 번지르르 하지만 절조 없는 사람을 ‘온갖 나무’에 비유하고, 화려한 겉모습은 지니지 못했지만 온갖 역경 속에서도 지조를 잃지 않는 사람들을 ‘매화’에 비유함으로써, 「梅花落」의 내용과 주제를 확대하였다.

이 시는 형식적인 면에서 매우 특이한 점을 지니고 있고,⁸⁾ 수사기교적인

6) 蕭滌非, 『漢魏六朝樂府文學史』(人民文學出版社, 1984), 242쪽

7) 『先秦漢魏晉南北朝詩』(木鐸出版社, 臺北, 1983), 1278쪽 “中庭雜樹多, 偏爲梅咨嗟. 問君何獨然? 念其霜中能作花, 露中能作實. 搖蕩春風媚春日. 念爾零落逐寒風, 徒有霜華無霜質.”

면에서도 문답과 비유와 의인화의 수법을 적절히 구사하고 있다. ‘梅花’를 고고한 절개가 있는 군자에 비유하고, ‘雜樹’를 무능하고 절조 없는 사대부에 비유하면서, 뜰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의인화하였다. 아울러 ‘問君’에서 매화를 찬미하는 이유를 반문의 형식으로 자문하였고, 이하 다섯 구절은 답변으로, 바람과 비를 맞고 서리와 이슬을 겪어도 절조와 기개를 잃지 않고 곳곳이 자라는 매화의 지조를 찬미하면서, 차가운 바람에서 우수수 떨어지고 서리를 견뎌내지 못하는 무능하고 지조 없는 잡수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풍자의 뜻을 품고 있다.

한미한 집안 출신인 시인이 처한 상황과 가문관념이 아주 심했던 사회배경을 연결해보면, 이 시는 阮籍의 『詠懷詩』 17수 중 첫째 시 “한밤중에 잠들지 못하고, 일어나 앉아 금을 타네.(夜中不能寐, 起坐彈鳴琴.)”라는 시를 본받아 지은 『擬阮公夜中不能寐』의 구절과 『擬行路難』 제8수 “인생은 언제나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것, 슬픔 가득 안고 밤늦도록 배회한다.(人生不得恒稱意, 惆悵徙倚至夜半.)”라는 시구에서 보는 것 같은 답답한 심정과 내재적 일치성을 볼 수 있다.⁹⁾ 포조는 매화를 읊으면서도 그의 인생관을 투영하면서, 매화의 형태만을 표현하지 않고 매화의 기품을 묘사하여 작가의 정서를 드러내었다.

포조의 「매화락」 이외에, 위진남북조 시대의 「매화락」으로는 吳均(469~520)의 오언고시 1수, 陳 後主 叔寶의 오언고시 2수, 徐陵(507~583)의 오언고시 1수, 蘇子卿(468~494)의 오언고시 1수, 張正見(527?~575?)의 오언고시 1수, 江總(519~594)의 오언고시 2수와 16구의 칠언고시 1수 등 총 9수가 더 있다. 이중 陳 後主 叔寶의 오언고시 1수는 매화가 아닌 楊柳를 소재

8) 송영정 편저, 『포조시선』(문이재, 중국시인총서 209, 2002), 66쪽. 포조의 「매화락」은 전반부 4구는 오언이고 후반부 4구는 칠언으로 되어 있으면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오언과 칠언이 교차하는 제4 제5구에서 칠언과 오언을 뒤바꾸어 놓았다. 또 제4 제5구는 의미상으로 한 문장이지만, 시가에서 압운은 보통 하나의 의미단락을 표시하며, 換韻은 주로 내용상의 전환이 있을 때 하는 것과 달리, 중간에 換韻을 하였는데, 이를 두고 沈德潛은 格法이 대단히 기이하다고 하였다. 「매화락」의 형식에 대해서는 다음 소절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9) 婁國忠 主編, 『詠梅詩詞百首詳解』(西泠印社出版社, 2011), 10-11쪽

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시들은 한겨울인 정월에 꽃이 피고 지는 매화의 아름다움과 기상을 소재로 하고 있다. 齊梁時代 유행했던 宮體詩와는 또 다른 풍격과 내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鮑照·吳均·張正見·徐陵 등 많은 문인들이 「梅花落」의 형식을 운용하였다.

당대에는 初唐詩人 盧照隣·楊炯·沈佺期·劉方平 등이 악부시의 전통을 계승하여 「梅花落」을 창작하였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4수의 당대 「매화락」은 모두 8구 오언고시인데, 다음은 唐代 楊炯의 「梅花落」이다.

창밖에 한 그루 매화,
겨울 꽃 다섯 잎 피었네.
그림자는 아침햇살 따라 멀어지고,
꽃향기는 바람에 실려 날려 오네.
눈물 흘리며 구리 장식 달린 휘장 대하고,
수심에 차 옥으로 만든 경대를 바라보네.
길 떠난 이는 소식조차 없으니,
봄을 한하며 얼마나 서성였던가.¹⁰⁾

이 시는 규방의 젊은 부인이 창밖에 매화가 핀 것을 보고, 소식조차 없는 님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움이 깊어 매화 날리는 봄날조차 한스럽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王昌齡이 「閨怨」에서 ‘문득 길가에 푸른 버들가지 본 뒤에, 낭군이 벼슬 찾도록 보낸 일 후회하네.(忽見陌頭楊柳色, 悔教夫婿覓封侯.)’라는 임 그리워하는 내용의 시를 지었는데,¹¹⁾ 그 의경이 흡사하다.

창안에서 창밖의 매화를 보는 주인공은 아주 상세하게 매화를 관찰하여 다섯 잎과 매화의 그림자를 시각적으로, 매화의 향기를 후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주인공은 구리 장식 달린 휘장 앞에서 눈물 흘리고 옥으로 만든 경대를 바라보며 수심에 가득 차 있다. 이 장면에서는 주인공이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수

10) 『全唐詩』(宏業書局, 臺灣, 1982), 卷50, 154쪽, 「梅花落」“窗外一株梅, 寒花五出開. 影隨朝日遠, 香逐便風來. 泣對銅鉤障, 愁看玉鏡臺. 行人斷消息, 春恨幾裴回.”

11) 『全唐詩』, 위의 책, 卷143, 362쪽, 「閨怨」

심으로 눈물을 흘리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더해 주는데, 이러한 궁금증은 마지막 연에서 해소된다. 멀리 떠나있는 연인, 즉 그의 남편은 소식조차 없으니, 봄이 되어 더욱 그리워지고 마음속의 원한이 사라지지 않는다. 차가운 겨울에 피어 봄이 움을 알려주는 매화가 공연히 봄의 슬픔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 시는 구도가 복잡하지 않지만, 매화와 여인이 교묘히 연결되어 함축적이면서도 자연스럽다. 「梅花落」은 본래 전쟁터에 나온 병사들이 따뜻한 봄날 고향생각을 노래한 피리곡인데, 이 시는 역으로 한 여인이 매화를 보면서 멀리 떠난 님을 그리워하는 세심한 감정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詩라고 할 수 있겠다.

明代 楊慎은 「梅花落」 서에서 “고악부에는 매화락이란 곡명이 있었으며, 당대 여러 작가들 중 이 작품을 지은 자들이 많았다.”고 하였는데,¹²⁾ 당대 시인들의 「매화락」으로 현존하는 작품이 단지 4편 밖에 없는 것은 의아하다. 楊慎이 언급한 “지은 작가가 많았다”는 말이 단지 강조한다는 어감상의 차이일 뿐인지, 실제로 더 많은 「매화락」이 있었는데 실전된 것인지, 아니면 楊慎이 4편만을 보고서도 단순히 과장하는 것인지, 전하는 자료가 없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을 뿐이다.

宋代의 「매화락」으로는 曹勳의 8구 오언고시 한 수와 李少雲의 오언절구 한 수 등 2수만이 전하고 있다. 그러나 李少雲의 오언절구 「매화락」은 『宋詩紀事』 卷94에는 「病中詠梅花」로 수록되어 있고, 『御選宋詩』 卷63 五言絕句에는 女道士 李少雲의 「梅花」 시로 수록되어 있어,¹³⁾ 이 시를 의고악부시 「매

12) 楊慎, 『升菴集』 卷14, 古樂府 “古樂府有梅花落曲, 唐人諸家作者多矣.”

13) 『宋詩紀事』 卷94, 「病中詠梅花」 “농염한 흰 꽃은 차가운 눈 속에 맑게 빛나고, 맑은 향기는 저녁 바람에 몸을 맡기네. 가련하구나, 완전히 나와 흡사하여, 이 산 속에서 떨어지는 것이.(素豔明寒雪, 清香任晚風. 可憐渾似我, 零落此山中.)” 아울러 이 시의 뒷부분에는 許顛, 『彥周詩話』(何文煥, 『歷代詩話』, 臺灣 藝文印書館, 民國72年, 222-223쪽) 13條 “有李氏女者, 名少雲, 本土族, 嘗適人夫, 死無子, 棄家著道士服, 往來江淮間. 僕頃年見之金陵, 其詩有云, 幾多柳絮風翻雪, 無數桃花水浸霞. 殊無脂澤氣. 又喜煉丹砂, 僕亦得其方, 大抵類魏伯陽法, 而有銖兩加精詳者也. 嘗語僕曰, 我命薄, 政恐不能成此藥耳. 後二年再見之, 其瘦骨立, 蓋丹未成, 而少雲已病. 僕問曰, 子丹成欲仙乎, 惟甚瘦則鶴背能勝也. 笑曰, 忍相戲耶. 病中作梅花詩云, 素豔明寒雪, 清香任晚風. 可憐渾似我, 零落此山中. 尋卒.”이란

화락」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 모호하다. 따라서 宋代의 「매화락」으로는 曹勛의 8구 오언고시 한 수만이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서는 曹勛의 8구 오언고시 한 수를 보기로 한다.

원근 도처에 모두 옮겨 심었더니,
 홀로 꽃 피어 온 겨울을 차지하였구나.
 원망 담긴 슬픈 호가 소리 애절하고,
 향기 맺힌 흰 얼굴은 더욱 농염하다.
 열매가 있으면 금 술에 조미료로 쓰이고,
 뿌리를 남기면 더하여 현에 봉해지겠지.
 아름다운 여인 잠에서 갓 깨어났으니,
 남겨두어 꽃다운 얼굴 비추게 하리라.¹⁴⁾

曹勛의 이 시는 전쟁터에 출정 나온 병사들이 봄날 따뜻한 고향 생각을 한다는 내용이나 규방에 외로이 남은 여인이 멀리 떠난 임을 그리워한다는 「매화락」 본래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胡笳 소리와 아름다운 가인이 매화와 함께 소재로 등장하지만, 악부시 본래의 의미는 많이 상실되었고, 매화의 농염함을 읊은 영물시라는 인상을 훨씬 강하게 보여 준다.

元代の 「매화락」으로는 錢惟善의 8구 오언고시 한 수와 周巽의 5·7언 장단구 한 수 등 2수가 전해지고 있다. 周巽의 5·7언 장단구는 앞에서 이미 인용한 포조의 5·7언 장단구와 형식이 똑 같다. 여기서는 錢惟善의 오언고시 한 수를 보기로 한다. 錢惟善의 다음 시는 笛曲이란 이미지와 객지의 나그네가 고향 생각으로 수심에 젖는다는 「매화락」 본래의 내용이 잘 융합되어 있다.

피리 가락 속에 매화가 지는데,

일화가 첨부되어 있다.

14) 曹勛, 『松隱集』 卷6, 「梅花落」 “殖雖無遠近, 開獨占三冬. 怨入哀笳切, 香凝素臉穠. 有子調金鼎, 遺根益縣封. 佳人初睡起, 留取照芳容.”

어느 곳에서 수심이 가장 많은가.
달 뜬 저녁 강변에 분분히 날리고,
언덕 위 가을 구름을 붙어서 깨뜨린다.
애간장은 느릅나무 늘어진 변새에서 끊어지고,
꿈에서나마 고향 황학루로 돌아간다.
길가는 나그네 피리소리 감당치 못해,
외로운 배 위에서 두 눈 가득 눈물 흘린다.¹⁵⁾

明代의 「매화락」은 劉基를 비롯하여 모두 14작가의 17수가 전해지고 있다. 이 「매화락」 중에서 楊慎의 작품에는 유일하게 다음과 같은 詩序가 붙어 있다.

고악부에는 매화락이란 곡명이 있었으며, 당대 여러 작가들 중 이 작품을 지은 자들이 많았다. 대개는 꽃이 핀 것을 읊었으며, 꽃이 지는 것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여행 중에 술숲에 머무르다 마침 매화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는, 이에 옛날의 제목을 원용하여 새로운 곡을 지었다. 비록 정을 펼쳐내는 데는 부끄러움이 있지만, 사물의 형상을 그려내는 데는 거의 어긋나지 않았다고 할 따름이다.¹⁶⁾

이 시서 밑에 楊慎은 오언절구 「梅花落」 네 수를 덧붙이고 있는데, 그 시 중에 셋째 수 한 수를 인용해본다.

매화가 지고 또 매화가 피는데,
흐르는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구나.
그대의 마음은 매화에만 있지만,
소첩의 뜻은 매실조차 애뜻하다오.¹⁷⁾

15) 錢惟善, 『江月松風集』 卷3, 「梅花落」 “笛裏梅花落, 何處最多愁. 紛飛江月夕, 吹破隴雲秋. 腸斷白榆塞, 夢回黃鶴樓. 行人不堪聽, 雙淚滴孤舟.”

16) 楊慎, 『升菴集』 卷14, 「古樂府」 “古樂府有梅花落曲, 唐人諸家作者多矣. 皆詠其開, 不言其落也. 旅行松次適見梅花落, 乃援舊題以成新曲. 雖有愧緣情, 庶不謬體物云耳.”

17) 楊慎, 『升菴集』 卷14, 「古樂府」其三 “梅落復梅開, 流光似流水. 君心在梅花, 妾意憐梅子.”

楊慎은 이 서문에서 唐代 작가들은 “대개 꽃이 핀 것을 읊었으며, 꽃이 지는 것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唐代 시인들의 시를 보면 盧照鄰과 楊炯의 「매화락」에서는 꽃이 핀 것만을 묘사하였지만, 沈佺期の “눈 속에서 꽃은 이미 떨어지고, 따뜻한 봄바람에 잎도 돌아나겠지.(雪中花已落, 風暖葉應開.)”라는 표현과 劉方平의 “봄바람이 불어 점점 떨어지더니, 하룻밤 새에 몇 가지나 비었구나.(春風吹漸落, 一夜幾枝空.)”라는 시구에서는 꽃이 지는 ‘梅花落’을 읊고 있으니, 양신이 沈佺期和 劉方平의 「매화락」을 보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다. 양신의 이 네 수의 시들 역시 고향 그리움과 이별의 원망이라는 「매화락」 본래의 내용보다는 매화의 생태적 속성과 상징성 등에 초점이 더 맞추어져 있다.

2) 「梅花落」의 형식

악부시 「매화락」의 형태를 보면, 형식적으로 오언시도 있고 칠언시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오언과 칠언이 뒤섞인 장단구가 혼재하고, 또 4구의 절구, 8구의 고시, 16구의 고시가 모두 존재한다. 漢代부터 전해졌던 笛曲이었으므로 옛날에는 그 정해진 악보와 가락이 있었을 것이지만, 당대 이후로 악보는 전해지지 않고 가사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다양한 형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진대 이후로 「매화락」 가락이 서로 다른 몇 가지 형식으로 전해졌던 것인지, 당대 이후로 가사만 전해지고 가락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인작가들이 여러 형태의 노래 가락을 동일한 「매화락」으로 오인하였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笛曲과 角曲과 琴曲을 후대의 문인들이 혼동하여 잘못 받아들여지게 된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전해지지 않아 분명히 알 수 없다. 아마도 가락이 실전된 상태이므로 악부시를 본받아 지은 후대의 의고악부시는 제한이나 속박이 없어 시제 선택이 비교적 자유로웠고, 이로 인해 다양한 형식의 「매화락」이 창작되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위진대부터 명대까지 검색할 수 있는 현존 「매화락」 35수를 그 형식별로

분류해보면, 8구의 오언고시가 총 23수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오언절구 형식이 7수, 5·7언 장단구 형식이 3수, 이밖에 16구의 오언고시가 1수, 16구의 칠언고시 1수가 있다. 위진대와 당대의 「매화락」은 대다수가 오언고시인데, 5·7언 장단구 형식의 포조 시와 16구 칠언고시의 형태를 한 江總의 시가 특이하며, 송대 이후의 「매화락」으로는 오언절구와 16구의 오언고시가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전체 분량만을 보면 오언절구 형식과 16구의 칠언고시는 그 길이에서 5-6배 가량 차이가 나는데, 만약 「매화락」이 송대의 詞牌처럼 일정 형식의 고정된 가락이 있었다면, 이러한 현상은 분명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악보와 가락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후대의 작가들은 형식의 구속 없이 한 편의 시가 속에 자신이 표현하고자 했던 바를 자유롭게 펼쳐낼 수 있었던 듯하다.

「매화락」의 형식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8구의 오언고시 형태는 앞 소절에서 이미 唐代 楊炯의 「梅花落」과 宋代 曹勛의 「매화락」 및 元代 錢惟善의 「매화락」 등 이미 3수나 인용하였으므로, 여기서는 5·7언 장단구 형식의 「매화락」을 한 수 더 인용하기로 한다. 이 장단구 형식의 매화락도 앞 소절에서 鮑照의 「梅花落」을 이미 한 수 인용하였는데, 같은 장단구의 형식이라도 元代 周巽의 「梅花落」은 오언과 칠언의 배치 순서까지 鮑照 「梅花落」의 형식과 동일하지만, 明代 劉基의 「梅花落」은 같은 장단구이지만 형태가 鮑照 「梅花落」과는 자못 다르다.

種梅長江邊,	장강 변에 매화를 심었는데,
歲晚花始發.	한 해가 저물 무렵에 꽃피기 시작하네.
東風爲愛桃與李,	동풍이 사랑하는 것은 도화와 오얏꽃이라,
却使孤芳坐銷歇.	오히려 외로운 매화를 공연히 사라지게 하네.
美人高樓深紫霞,	미인은 높은 누각 자줏빛 노을 깊은 곳에서,
捲簾一見長嘆嗟.	주렴 걷고 한번 바라보며 길게 탄식하는구나.
世間有榮卽有悴,	세상사 영화가 있으면 바로 영락함이 있는 것,
君不見,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海中碧樹終無花.	바다 속 벽옥수가 끝내 꽃 피우지 못한다는 것을. ¹⁸⁾

鮑照의 「梅花落」은 형식적인 면에서 매우 특이한 점을 지니고 있어, 전반부 4구는 오언이고 후반부 4구는 칠언으로 되어 있으면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오언과 칠언이 교차하는 제4 제5구에서 칠언과 오언을 뒤바꾸어 놓았는데, 유기의 「매화락」은 전반부 2구는 오언이고 후반부 6구는 칠언으로 되어 있으면서 마지막 구에 또 ‘君不見’을 첨가하여 장단구에 과격을 두고 있다. 만약 ‘君不見’을 마지막 구의 일부분으로 본다면 이 시는 5·7언 장단구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형식과는 또 다른 형태라 하겠다. 압운에 있어서 중간에 換韻을 한 것은 포조의 「매화락」과 같다.

「매화락」의 형식 중 가장 짧은 오언절구와 가장 긴 16구의 오언고시를 함께 인용해보면 그 형식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비해볼 수 있다. 오언절구로 楊愼의 「매화락」 4수 중 첫째 수 한 수와 16구의 오언고시로 江總의 「梅花落」을 한 수씩 각각 인용한다. 형식적으로 楊愼의 절구에서는 첫째 둘째 구에서 동일한 글자를 중복 사용하여 언어유희적으로 시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과, 江總의 고시에서는 柏梁臺體를 원용하여 매구마다 운자를 사용하면서도 두 구씩 換韻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落梅復落梅,
千片復萬片.
願借鼓芳風,
吹入披香殿.

매화가 지고 또 매화가 지는데,
천 조각이더니 또 만 조각이네.
원컨대 불어오는 꽃다운 바람 빌려,
피향전으로 날아들게 하고 싶네.¹⁸⁾

臘月正月早驚春,
衆花未發梅花新.
可憐芬芳臨玉臺,
朝攀晚折還復開.
長安少年多輕薄,
兩兩共唱梅花落.
滿酌金卮催玉柱,

선달과 정월인데도 봄보다 일찍 놀라,
온갖 꽃 피지 않았는데 매화만 새롭구나.
가련하구나, 그윽한 향기 옥 같은 누대에서,
아침저녁 잡히고 꺾여도 도리어 다시 피니.
장안의 소년들은 많이도 경박하여,
쌍쌍이 함께 매화락을 노래하네.
금술잔 가득 채워 현악기 연주 재촉하니,

18) 劉基, 『誠意伯文集』卷1, 「梅花落」

19) 楊愼, 『升菴集』卷14, 「古樂府」其一

落梅樹下宜歌舞.	날리는 매화 아래 노래와 춤이 있어야지.
金谷萬株連綺蕩.	황금 골짜기 만 그루는 비단용마루에 이어지고,
梅花密處藏嬌鶯.	매화 뻥뻥한 곳에 아름다운 피꼬리가 숨어 있네.
桃李佳人欲相照.	복숭아 오얏 같은 미인은 서로 비추고 싶어서,
摘葉牽花來并笑.	잎을 따고 꽃을 꺾어 와서는 함께 웃는구나.
楊柳條青樓上輕.	푸른 가지 버드나무는 누대 위에 가볍고,
梅花色白雪中明.	백설 같은 하얀 매화는 눈 가운데 밝구나.
橫笛短簫淒復切.	비긴 것대 짧은 단소 처량하다 다시 애절함에,
誰知柏梁聲不絕.	누가 알았으랴, 백랑대에 소리 끊이지 않은 것을. ²⁰⁾

이 두 수가 만약 정해진 일정한 악보나 가락에 맞추어 노래로 불려진 가사라 한다면, 동일한 곡조의 노래 가사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듯하다.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횡취곡에 포함된 笛曲 「매화락」의 악보와 가락은 唐代 이전에 실전되어 이미 그 실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후대 문인들이 악부시를 본받아 창작한 의고악부시는 시인의 감회를 펼쳐내는데 적절한 여러 가지 형식을 자유롭게 차용하여 의상을 표현하였을 것이다. 이로 인해 비록 악부시의 제목을 지니고는 있지만, 「매화락」은 당대 이후로 갈수록 여타 고전시가와 유사한 운문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4. 한국 고전시가 중의 「梅花落」

한국의 고대 문인들도 梅花를 소재로 삼아 상당히 많은 시를 창작하였다. 신라말 崔匡裕에서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매화시는 李奎報를 거쳐 李穡·李崇仁·車原頰 등 고려말 사대부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창작되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초기와 중기의 徐居正·金時習·金宗直·曹偉·金麟厚·李滉 등을 열거할 수 있으며, 조선후기에는 李麟祥·李德懋·朴齊家·柳得恭·申緯·金正禧 등을 대표적인 문인으로 들 수 있는데, 매화에 대한 관심은 조선조

20) 郭茂倩, 『樂府詩集』 앞의 책, 卷24, 「橫吹曲辭·四」 351쪽

사대부 문인들의 공통된 정조였다고 할 수 있다.²¹⁾ 한국 고전시가에서 매화시가 많이 창작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문인사대부들이 창작한 매화시에 대한 연구논문 또한 상당히 많이 발표되었다.²²⁾

이러한 기본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고전시가에 악부시 「매화락」을 시제로 한 작품이 있는지를 탐색해보았다. 한국의 고전시가 중 악부시 「매화락」을 시제로 한 작품으로는 金履萬(1683-1758)의 『鶴臯先生文集』 卷4에 수록된 칠언절구 두 수, 丁範祖(1723-1801)의 『海左先生文集』 卷10에 수록된 오언고시 한 수, 그리고 姜浚欽(1768-1833)의 『三溟詩集』 4編에 편집된 오언고시 한 수 등 총 4수를 찾을 수 있었다. 이밖에 시제에 ‘梅花落’이란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작품으로는 權擘(1520-1593)의 『習齋集』 補遺에 수록된 칠언절구 「題壽陽公主梅花落額圖」, 柳命天(1633-1705)의 『退堂先生詩集』 卷5에 수록된 칠언절구 「梅花落盡有感」, 그리고 鄭宗魯(1738-1816)의 『立齋先生文集』 卷1에 수록된 오언절구 「曉起見梅花落次唐韻」 등 세 수를 탐색할 수 있었으나, 이 세 수의 시들은 악부시 「매화락」과는 무관한 시가들이었다.

여기서는 먼저 丁範祖의 『海左先生文集』 卷10의 「매화락」을 한 수 보기로 한다.

21) 박혜숙, 「조선의 梅花詩」(『韓國漢文學研究』 第26輯, 2007) 420-423쪽 참조

22) 한국 역대 문인들의 매화시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 대략적인 것을 열거하면, 이종석의 「退溪의 詩文學 研究-梅花詩를 중심으로」(고려대 석사논문, 1975), 洪瑠欽의 「퇴계의 梅花詩帖에 대한 연구」(『인문연구』 4,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83), 王甦의 「李退溪의 詠梅詩」(『퇴계연구원 퇴계학보』 제41호, 1984), 정석대의 「李退溪의 梅花詩」(고려대 석사논문, 1987), 李延恩의 「韓國梅花詩의 傳統과 繼承研究」(建國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 1996), 김원준의 「芝峯梅花詩考察」(『韓民族語文學』, 第39輯, 2001), 이택동의 「18세기 梅花詩研究」(『성심어문논집』 第26輯, 2004), 南在澈의 「樂齋 徐思遠의 學問淵源과 梅花詩」(『동방한문학』 第30輯, 2006), 김재룡의 「退溪 李滉의 梅花詩研究」(『우리文學研究』, 第19輯, 2006), 「韓國梅花詩의 傳統과 宋璟」(『우리文學研究』, 集22輯, 2007), 「李睟光의 梅花詩研究」(『우리文學研究』 第27輯, 2009), 박혜숙의 「조선의 梅花詩」(『韓國漢文學研究』 第26輯, 2007), 李在鎰의 「梅花詩에 나타난 李滉의 意識指向」(『동양한문학연구』 第27輯, 2008), 안봉의 「中韓梅花詩의 比較研究」(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碩士, 2009) 등을 들 수 있다.

어린 아낙 규방지키며 원망만 쌓았는데,
 창 밖 매화는 몇 번이나 꽃을 피웠던가.
 향 스며들어 거문고의 금안을 회통하고,
 그림자 어려 난새 거울에 비스듬히 비치네.
 슬픔을 변세의 관문에 부치고 싶지만,
 가지 어루만지며 세월을 느낄 뿐이네.
 피었다 지는 매화를 차마 견디지 못하겠는데,
 처량한 곡조의 피리 부는 이는 그 누구인가.²³⁾

오언고시인 이 시에서는 婦人·閨怨·梅花·笛曲 등 악부시의 주요어를 대부분 차용함으로써, 위진 이래 의고악부시 본연의 기본적인 정조와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姜浚의 『三溟詩集』 4編에 수록된 오언고시 「매화락」도 비슷한 정조를 지니고 있다.

손수 창 앞에 매화를 심었는데,
 삼 년 지나 사람 키보다 더 자랐구나.
 심었을 때 이미 그대 떠났는데,
 꽃이 지니 더욱 눈물이 수건을 적신다.
 화장 마치고 홀로 슬피 보는데,
 외로운 그림자 누구와 친하겠는가.
 매화를 보고 있자니 나와 너무 닮아,
 멀리 농서 봄머리로 보내고 싶구나.²⁴⁾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위진남북조와 당대 「매화락」의 전형적인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조는 시구에 ‘梅花落’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수 많은 용례에서도 인지할 수 있다. 『한국문집총간』 등의 자료를 검색해보면 시구에 ‘梅花落’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용례로 이백여

23) 丁範祖, 『海左先生文集』 卷10, 「梅花落」“少婦閨中怨, 窓梅幾度花. 香侵金雁逗, 影入鏡鸞斜. 欲寄悲關塞, 將攀感歲華. 不堪開又落, 吹笛是誰家.”

24) 姜浚, 『三溟詩集』 4編, 「梅花落」“手種窓前梅, 三年長過人. 種時君已去, 花落益沾巾. 粧成悲獨見, 影孤欲誰親. 梅花看似我, 遙寄隴頭春.”

건을 찾을 수 있었는데,²⁵⁾ 이 중에는 악부시로서의 「매화락」을 칭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자연 현상인 ‘매화가 진다’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도 있다.²⁶⁾ 하지만 많은 용례가 笛曲·閨怨·思鄉 등의 심상과 연결되어 그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악부시 「매화락」을 염두에 두고 ‘梅花落’이란 용어를 시구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표적인 예로 鄭斗卿의 『東溟集』 제1권에 실려 있는 「古樂府行贈權子敬」에서 “하늘 닿은 사막 땅에 하얀 눈이 날리는데, 오랑캐 아이 짓대 들어 매화락을 불어 대네.(大漠連天白雪飛, 胡兒橫笛梅花落.)”라는 시구를 들 수 있다. 이 두 구절은 악부 금곡가사 가운데 「白雪歌」와 악부 횡취곡사 가운데 「梅花落」을 언급한 것이다. 정두경은 젊은 시절 악부에 관심을 가져 의고악부시 116편을 남겼고, 그의 전반적인 시 작품엔 ‘악부풍이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며, 또 만년에는 위의 작품 「古樂府行」을 지어 악부의 역사와 전범이 되는 대표작들을 제시하고, 악부 창작을 독려하기도 하였다.²⁷⁾ 대체로 시체에 ‘笛’이나 ‘落梅’가 사용된 시들에 ‘매화락’이란 어휘가 사용된 경우가 많았으므로, 한국 고전시에서의 「매화락」은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악부시 「매화락」, 특히 당대의 「매화락」을 염두에 두고 창작을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梅花’는 中國의 古代文人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문인들이 특히 애호한

25) 이 자료는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제공하는 「한국고전종합DB」에서 검색한 것이다. 222건의 용례 중에는 풍수지리 용어인 ‘梅花落地形’ 2건, 고전 시가가 아닌 산문인 경우, 이미 앞에서 언급한 詩題에 사용된 용례 등을 제외하면, 시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례로 총 200여건의 항목을 검색할 수 있었다.

26) 예를 들어 시체에 ‘梅花落’이란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鄭宗魯의 『立齋先生文集』文集 卷1에 수록된 「曉起見梅花落次唐韻」 “봄 새벽에 매화가 떨어지고, 산새들은 수도 없이 지저귀다. 태반이 주인의 주렴으로 날아들지만, 여향은 가지에 그나마 남아있구나.(梅花落春曉, 無數啼山鳥. 半入主人簾, 餘香在枝少.)”라는 시는 새벽에 일어나 매화 꽃잎이 휘날리는 모습을 보고서, 唐代 시인 孟浩然的 유명한 시 「春曉」에 쓰인 韻字 曉·鳥·少를 次韻하여 지은 오언절구로, 악부시 「매화락」과는 관련 없는 시라 할 수 있다.

27) 남은경, 『東溟 鄭斗卿 文學의 研究』(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121-132쪽.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에서 재인용.

꽃이었으니, 동아시아의 문인들은 수많은 꽃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梅花를 詩의 소재로 많이 삼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고대 문인들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던 듯하다. 고대 문인들이 매화를 특히 사랑하였던 것은 梅花가 지니고 있는 어떤 독특한 상징적 의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²⁸⁾ 고대 문인들은 경우에 따라 梅花의 '상징성'에 대해 感愛에 가까운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마음이 악부시 「매화락」의 모방과 활용에서도 엿보인다 하겠다.

5. 결론

梅花詩를 연구하기 위해 詩題에 매화라는 용어가 쓰인 시와 梅花를 주제로 하고 있는 시들을 선별하다보면, 魏晉代부터 明代까지 많은 시인들이 동일한 시제의 「梅花落」을 창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존 「매화락」은 鮑照와 吳均 등 위진대부터 劉基를 비롯한 明代 시인의 작품까지 총 35수가 전해지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들 35수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梅花落」을 분석해보았을 때, 그 내용과 형식이 매우 다양하였다. 「梅花落」은 원래 한나라 악부의 橫吹曲 곡명으로, 본래 전쟁터에 나온 병사들이 따뜻한 봄날 고향생각을 노래한 군중의 笛曲이었지만, 문헌상 남아 있는 최초의 「梅花落」인 鮑照의 의고악부시는 내용이 軍樂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매화를 읊으면서도 매화의 형태를 표현하지 않고 매화의 기품을 묘사하여 작가의 인생관을 투영하였다. 대체로 위진대 이후의 「梅花落」은 변방으로 원정 나간 남편이 고향 생각을 하는 내용에 더하여, 규방에 홀로 남은 부인이 남편을 그

28) 매화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는 程杰의 「梅花象徵生成的三大原因(上)」(『文學研究』, 2001), 이해원의 「歷代 詠梅詩詞에 나타난 梅花의 象徵意味研究」(『中國學論叢』, 2002), 이선옥의 「梅花의 象徵과 梅花圖」(『호남문화연구』 제40집, 2007), 禹在鎬·權寧海의 「唐代 梅花詩에 나타난 梅花의 상징성」(『中國語文學』 61집, 2012) 등에 역대 매화의 상징성에 관한 포괄적인 정리가 되어 있다.

리워하고 봄을 한스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 고전시가에서의 「梅花落」은 모두 4수를 찾을 수 있었는데, 한국과 중국의 「梅花落」을 비교해보았을 때, 그 내용과 형식에서 양자가 별반 차이가 없었으므로, 한국 고전시가 「梅花落」 역시 악부시 「梅花落」을 그대로 답습하여 창작한 작품이라 하여도 무방할 듯하다.

「梅花落」 35수의 형식도 상당히 다양하여, 8구의 오언고시가 총 23수로 가장 많고, 오언절구 형식이 7수, 5·7언 장단구 형식이 3수, 이밖에 16구의 오언고시와 칠언고시가 각각 1수가 있다. 분량만을 보면 오언절구와 16구의 칠언고시는 그 형식과 길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만약 일정 형식의 고정된 악보나 가락이 있었다면,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황취곡에 포함된 笛曲 「매화락」의 악보와 가락은 唐代 이전에 이미 실전되었기 때문에, 후대 문인들은 악부시를 본받아 의고악부시를 창작하면서, 시인의 감회를 펼쳐내기 적절한 여러 가지 형식을 자유롭게 차용하였을 것이다. 이로 인해 비록 악부시의 제목을 지니고는 있지만, 「매화락」은 당대 이후로 갈수록 여타 시가와 유사한 운문으로 정착되었다 하겠다. 따라서 「梅花落」은 비록 악부시로 본래 전쟁터에 나온 병사들이 매화 피는 따뜻한 봄날 고향을 그리워한 思鄉曲에서 비롯되었지만, 후대로 갈수록 매화의 생태적 속성과 상징성을 담은 내용을 주제로 하는 작품이 많아지기 때문에, 매화시의 범주에 넣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문헌자료 수집과 검색에 한계가 있어 청대의 「매화락」을 연구 대상에 포함하지 못하였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후일의 과제로 남겨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고자 한다.

參考文獻

- 權寧海, 「唐代 梅花詩 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12
- 박혜숙, 「조선의 梅花詩」, 『韓國漢文學研究』 第26輯, 2007.
- 송영정 편저, 『포조시선』, 문이재, 중국시인총서 209, 2002.
- 禹在鎬·權寧海, 「唐代 梅花詩에 나타난 梅花의 象徵性」, 『中國語文學』 61집, 嶺南中國語文學會, 2012.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 『全唐詩』, 清聖祖御製, 宏業書局, 臺灣, 1982.
- 『先秦漢魏晉南北朝詩』, 木鐸出版社, 臺北, 1983.
- 『漢語大詞典』(全13冊, 漢語大詞典編纂委員會), 上海辭書出版社, 1986 初版
- 郭茂倩, 『樂府詩集』(全四冊), 中華書局, 1991.12 三版
- 婁國忠, 『詠梅詩詞百首詳解』, 西泠印社出版社, 2011.
- 蕭滌非, 『漢魏六朝樂府文學史』, 人民文學出版社, 1984
-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 上海古籍出版社, 1999
- 程 杰, 「梅花象徵生成的三大原因(上)」, 『文學研究』, 2001.
- 程 杰, 「『梅花三弄』起源考」, 『中國典籍與文化』, 2006.6
- 韓 寧, 「樂府橫吹曲『梅花落』考」, 『樂府學』 第3輯, 2008.8
- 李玉梅, 「古典名曲『梅花三弄』簡介」, 『流行歌曲(藝考)』, 2008.6
- 莫武秀, 「咨嗟有骨力發唱亦警挺-鮑照梅花落賞析」, 『閱讀與寫作』, 1996.1
- 王美鳳, 「『梅花落』研究(上)」, 『樂府學』 第5輯, 2009.12
- 王美鳳, 「『梅花落』研究(下)」, 『樂府學』 第6輯, 2010.12
- 張坤榮, 「『折楊柳』與『梅花落』」, 『語文學習』, 2008.2

Abstract

A Study on Yue-fu poetry(樂府詩) 「Plum blossom falls(梅花落)」

Woo, Jae-Ho

There are total 35 poems with the same title of 「Plum blossom falls(梅花落)」 written by Wei and Jin dynasty(魏晉代) poets, such as Bao zhao(鮑照), Wu jun(吳均), and by Ming dynasty(明代) poets, such as Liu ji(劉基). By studying these 35 poems, this paper investigates 「Plum blossom falls」 a Yue-fu Poetry and Imitative Yue-fu Poetry which was composed by a number of writers.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contents and the formation of 「Plum blossom falls」. Based on an analysis of a Korean Classical Poetry 「Plum blossom falls」 and comparison between the Korean Classical Poetry 「Plum blossom falls」 and Yeu-fu Poetry 「Plum blossom falls」, this paper studies whether the Yeu-fu Poetry 「Plum blossom falls」 can be regarded as a Plum Blossom Poem(梅花詩).

The contents and the formation of the existing 「Plum blossom falls」 are diverse. 「Plum blossom falls」 was originally a title of a Yue-fu Poem 「Songs accompanied by horizontal flutes(橫吹曲)」 in Han dynasty. It was a Songs accompanied by bamboo flutes(笛曲) singing of soldiers at a battlefield longing for their homes on a warm spring day. After Wei and Jin dynasty, the content of 「Plum blossom falls」 became mostly about women lamenting spring and longing for their husbands who went to battlefields.

Due to the fact that 「Plum blossom falls」 in the Korean classical poetry is similar with Yue-fu poetry in its contents and formation, it is safe to say that 「Plum blossom falls」 in the Korean classical poetry is an imitation of the Yue-fu poetry 「Plum blossom falls」. Although 「Plum blossom falls」 has a title of a Yue-fu poetry, hence its formation is similar with other Classical poetry after Tang dynasty(唐代) and poetries about the ecology and symbolism of Plum blossoms became mainstream over time, 「Plum blossom falls」 can be categorized as a Plum Blossom Poem.

Key words : Plum Blossom(梅花), 「Plum blossom falls(梅花落)」, Plum Blossom Poems(梅花詩), Yue-fu poetry(乐府诗), Songs accompanied by horizontal flutes(横吹曲), Songs accompanied by bamboo flutes(笛曲)

투 고 일 : 2014. 1. 10. / 심 사 일 : 2014. 1. 20.~ 2014. 2. 10. / 게재확정일 : 2014. 2. 20.